

# 1950년대 귀향소설 연구

김 만 수

## 1. 서론

1950년대 소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적·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실존철학과 모더니즘에 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간에도 몇 편의 연구를 통해 이 시기의 소설과 실존철학과 모더니즘 간의 관련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이 검토<sup>1)</sup>되었으나, 50년대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문학사적 주제가 이들과 어떤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실존철학과 비교론적인 관점을 취하거나 김동리, 황순원, 장용학, 손창섭 등의 작가론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실존철학과의 검토는 용어의 정확한 구사문제에 대한 논쟁<sup>2)</sup>이나 작품에의 기계적인 적용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로 보인다. 사실 실존철학의 안내서라할만한 조가경의 『실존철학』만을 참조한다해도, 작품에 대해 실존주의와 실존철학에 관련된 용어의 정확한 적용은 그리 쉽지 않을

- 
- 1) 천이두, 원형갑, 이태동, 이어령, 신경득, 염무웅, 전기철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자세한 목록은 참고문헌 참조.
  - 2) 김동리, 이어령, 김우종 간의 논쟁을 담은 「'중간소설'과 '지성적' '실존성' '극한의식'의 뜻」, 손세일 편, 『한국논쟁사 2: 어학. 문학』 (청람문화사, 1978) 참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소개된 사르트르·까뮈의 실존주의문학은 “그 경계선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철학의 영역과 맞붙어 있으며”<sup>3)</sup> 이러한 독특한 혼용은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복잡다기한 맥락의 한 부분을 빌려와서 우리 문학작품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빚어질 혼란과 무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에 모더니즘이라는 사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모더니즘은 성격을 달리하는 각 유파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양식들을 함께 포괄<sup>4)</sup>하고 있으며, 특히 모더니즘이 ‘망명지 문학’<sup>5)</sup>이라고 부를만큼 국제적이고 혼효적인 운동의 성격을 가진 만큼 그 사조로서의 범위도 광범위하며, 자연주의·상징주의·모더니즘의 세계적인 거장을 포괄할만한 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도 단편적인 적용에는 무리가 많다. 특히 초기 자본주의의 형성과 제국주의의 도래, 인구 백만을 넘는 메가로폴리스(거대도시)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성격<sup>6)</sup>을 도외시한 채 서구 도시사회의 모더니즘적 성격을 곧바로 우리 문학에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실존주의와 모더니즘이라는 포괄적인 이해방식을 피하면서 50년대 소설의 의미를 천착할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그 가능성의 하나로 일단 ‘귀향소설(Heimkehrerroman)’<sup>7)</sup>을 설정했다. 물론 실존주의 문학과 모더니즘과의 관련양상은 보다 더 탐구되어

3)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91년 개정판), pp. 329-352.

4) James Mcfarlane, 『The Mind of Modernism』, Malcolm Bradbury & James Mcfarlane ed., 『Modernism』 (Pelican Books, 1976), pp. 71-93.

5) 조이스·로렌스·만·브레히트·오든·나보코프 등의 거장들이 이민이나 망명을 택했다. 1차대전 때는 쥐리히, 2차대전 때는 뉴욕이 망명장소였으며 그곳들은 이들 작가들의 예술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위의 책, p. 101.

6) 이상의 논의는 Malcolm Bradbury, 『The Cities of Modernism』, 위의 책, pp. 96-103.

7) 정확한 번역은 ‘귀향자 소설’일 것이다. 그러나 ‘귀향자’라는 용어가 개인의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귀향’이라는 표현은 좀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좀더 포괄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본고에서는 ‘귀향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야 하겠지만, 우선 귀향소설이라는 용어와 이에 해당하는 작품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쟁’과 ‘도시’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발표된 ‘전쟁과 도시를 배경·주제로 삼은 작품’ 중에서 ‘귀향’의 모티브가 드러난 작품을 모은 다음, 이를 ‘귀향소설’이라는 명칭으로 포괄하고 그 귀향소설이 지닌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귀향소설은 군대에서 전역하여 도시나 고향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소설적 배경 공간의 이동’이라는 측면을 담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대를 전후하여 전시와 전후라는 ‘시간적 격차’를 보여주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귀향소설 속에 드러나는 이러한 시간/공간의 연속 혹은 단절이 50년대 소설의 주제를 보다 넓혔으리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다음 장의 논의를 통해서 우선 ‘군대’에서 ‘도시’로의 공간적 이동의 측면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 2. 50년대 소설의 두 범주: 군대와 도시의 구조적 상동성

도시와 군대의 구조는 여러모로 비슷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도시와 군대는 양자 공히 철저한 소비집단이며, 시간과 규칙의 준수가 어떠한 인간적 진실보다 선행된다는 점 등에서 구조상 같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도시와 군대는 잘 발달된 교통체계와 명령체계에 의해 지속되며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과 침탈에 의해 성립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철저한 위계질서에 근거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시키기도 한다<sup>8)</sup>. 본고는 ‘도시=군대의 구조적 상동성<sup>9)</sup>’이라는 방법을 통해 1950년대 도시문

8) Kevin Lynch, 『도시의 상』 (북원출판사, 1988)

황희용, 「불록거울 풀이」, 『건축문화』, 1987. 10-1988. 12) 등 참조

9) ‘구조적 상동성’은 골드만의 용어에서 빌린 개념이다(뤼시앙 골드만, 박영신 외 역, 『문학 사회학 방법론』, 현상과인식, 1984, pp. 45-52) 골드만의 개념을 인용한 힐데브란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소설에서 주인공의 개성상실과 해체현상을 현대사회의 분업화와 기계화 현상, 전후의 페허문학과 구조적 상동성으로 읽은 바 있는데(『소설의 이론』, 원당희. 박

학의 일단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들 논의 중에서 도시에 대한 부정적 묘사의 한 예는 도시를 강제수용소로 보는 관점이다. 도시는 억압을 위해 정교하게 축조된 건물이다. 도시는 정치권력의 집중의지에 의해 설계되며, 권력을 쥔 자가 도시를 지탱한다. 그것은 정치권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경제권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집중 수용'과 '억압'은 현대 도시계획의 두 가지 특징이다. 이같은 형식, 즉 정리에의 이상은 모든 유토피아 소설의 원형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중에서도 볼 수 있다. 획일화된 도시에서는 더이상 누구나 여행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그만큼 안정된다. 한편 도시에서는 주거보다 교통이 우선시된다. 이것은 마치 군대조직이 사령부(Head Quarter)를 중심으로 보다 빠른 교통과 통신체계를 방사선상으로 조직하는 것에 비견된다. 그러므로 도시 조형의 유일한 방법은 군대식으로 되고, 선적 건조물로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표적과 조준의 기술(측량사와 포병의 분야)이 도시조형에 강제적으로 조형된 것이다. 19세기 파리의 대도로와 광장 등 시가지 전체가 감시와 폭동진압을 위해 설계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sup>10)</sup>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도시소설은 일단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겠으나, 여기에는 좀더 확장된 논의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도시는 단순한 '장소(place)'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비유(metaphor)'이기도 하다.<sup>11)</sup> "모든 지각의 원천은 도시에서 시작하고 도시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며, 그것 너머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삶 너머의 어떤 것인 양 보이게끔 되었다"<sup>12)</sup>는 논의는 이와 연관된다. 예컨대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에 묘사된 오두막집과 도시의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다락방은 천국과의 연결통

병화 역, 현대소설사, 1992), 본고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군대=도시의 인물유형을 대비해보았다.

10) 미셸 라공, 주종원 역, 『현대의 폐허 = 도시』 (삼성문화문고, 1974), pp. 12-27.

11) Malcolm Brabury, 앞의 논문, p. 97.

12) Raymond Williams, *The Country and the City* (Paladin, 1973), p. 235.

로로, 지하실은 지옥의 입구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거주자들은 천국-지상-지옥 간의 관련양상을 자신의 집을 통해 상상한다(그들의 사고에 의하면 다락방은 천국과의 연결장소이므로, 기도장소로 활용된다). 그에 비해 도시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평지붕(pillotti)은 천국도 지옥도 없는 구조이며 이는 철저하게 인위적이고 지상적인 것에 상상력을 국한시킨다.

50년대의 급조된 우리의 도시는 이상의 도시론들이 예거하고 있는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전쟁의 부산물로서의 인구의 도시집중은 근대=도시의 구조적 상동성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도시소설의 형성과 '귀향' 모티브의 의미

도시소설에 대한 연구는 전해자 교수의 연구<sup>13)</sup>를 통해 도시소설의 일방적인 성격과 문학사적 의미 등이 검토되었지만 그 방법은 주로 농촌과 도시와의 대비를 통한 것이어서 본격적인 도시문학론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며, 그것도 우리 사회의 도시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기 이전인 일제시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재선 교수의 소설사<sup>14)</sup>에서 「도시공간의 시화:도시화 현상과 도시소설」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을 할애해 현대소설에 드러난 도시인식과 장르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연구대상이 70년대 소설에 국한되어 있고, 연구방법이 도시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측면에 주목한 정신분석학이라는 점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그간 도시문학론에 대한 접근이 소략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근대문학사의 연구대상이 주로 일제 이전의 시기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전의 경성 인구가 고작 50여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농촌인구 및 농촌의 생산력이 도시에 비해 압도적이었던 당대 상황을 감안해볼 때 식민지 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3) 전해자, 『현대 소설사 연구』(새문사, 1987), 전해자,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도시와 농촌』(김준오 외, 『한국 근대문학의 쟁점』, 한국정신문화원, 1992).

1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민음사, 1991).

주로 농촌문학론에 쏠려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참고로 농촌과 도시의 생산력 및 인구비율이 역전된 것은 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sup>15)</sup> 또한 여기에 인간의 원초적인 생명력에 대한 예찬과 동경, 농경생활의 정직성과 노동의 신성성 등에 대한 예찬을 중심으로 하는 전원예찬 취향의 고전적인 주제가 가세해 있는 형국이어서 농민 중심의 문학론이 오랫동안 즐기차게 논의되어온 것도 당연한 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도시문학론의 태동은 훨씬 늦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개화기의 서구문명 동경으로서의 도시공간에 대해서는 소박한 수준의 반영론의 시각에서, 30년대 모더니즘적 인식론 위에 태동된 도시문학론은 모더니즘의 미학원리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지만<sup>16)</sup>, '도시'를 중심으로 한 특수한 인식론과 역사적 배경을 중시한 논의는 앞으로 좀더 진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근대도시의 성장은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왕조 시기까지의 도시는 도시 성장의 일반적인 단계인 행정도시, 경제도시,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담지해왔지만, 일제의 지배 이후의 도시는 도시의 순기능적인 것과는 별도의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단계를 나누면 첫째 일제의 지배. 이 시기에는 일제의 수탈 경로와 군사적인 요소로서의 도시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둘째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는 해외 귀환동포들의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인구 급증이 이루어졌고, 셋째 6·25 이후에는 농촌공동체의 파괴와 이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이 이루어졌다<sup>17)</sup>. 또한 남한의 토지개혁은 농촌의 지주/소작관계를 도시의 산업구조 속에서 자본가/임금노동자의 관계로 이동시켰다<sup>18)</sup>. 이같은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 형성된 도시집단이 기형적인 성

15) 이은우, 「한국 근대 도시 농촌 간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서울대 경제학과 박사논문, 1992) 참조.

16) 최혜실,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민지사, 1992), 권성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89), 한상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난 미적 자의식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89), 김용직 편, 『한국 모더니즘 연구』(자유세계, 1993).

17) 김한준 백옥인 홍인옥 외, 『현대 도시문제의 이해』(1989),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일지사, 1990) 등.

18) 장상환, 「농지개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

격을 지니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 4. 귀향 소설의 개념규정

전쟁은 기존 가치의 파괴를 야기한다.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해온 기성 세대에 대해 전후세대는 저항하며, 전쟁 이전의 공동체(예컨대 농촌사회, 대가족제, 인정적인 세계 등의 공동사회)는 파괴되고 새로운 사회의식(도시, 핵가족제, 능률위주의 사회 등 이익사회)으로 재편된다<sup>19)</sup>. 전쟁은 가족 구성원의 사망과 이산, 인구의 도시집중, 새로운 직업의 선택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농촌의 파괴로 인해 야기된 인구의 도시집중은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집중으로서의 도시의 '순기능'보다는 실업자와 소외계층의 형성이라는 부정적인 양상으로 이어진다<sup>20)</sup>. 예컨대 상이군인은 실업으로 시달리고(실업자는 도시사회에만 있다. 농촌의 실업은 어느 경우이건 잠재적·계절적 실업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소외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편이란 사기, 폭력, 매춘 등이다. 앞서 말했듯 군대와 도시는 첫째 철저히 소비사회라는 점, 둘째 능률과 효율이 어떠한 인간적 가치보다 중시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데, 순진한 개인이 군대라는 비인간적인 메카니즘 속에서 타락(변신)하고, 군문을 나와서도 군사문화 속에서 학습 받은 타락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시사회의 논리에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

---

1986).

19) Kenneth Allsop, *The Angry Decade* (John Goodchild Publishers, 1985) 제1장 참조.

20) 도시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1900년에서 1차대전 전까지의 유럽도시는 절정에 다다른 부르조아 문명의 산업적, 상업적, 경제적 연락의 중심지로서 가장 안락한 경제적 조건과 거대한 제국주의의 건설로 인한 문명적 우월감의 집약된 표현이었다. 반면 피카소의 「아비뇰의 여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자율성과 전망이 무시된 채로 기하학적인 마름모꼴과 삼각형 모양의 나체의 여인'은 그 반대편의 극단에서 있다. Allan Bullock, 「The Double Image」, Malcolm Bradbury & James Macfarlane ed., 앞의 책, pp. 58-70.

이다. 이와 같은 경로로 전쟁의 부정적인 속성들은 도시의 불건강한 양태에 다시 재현되는데, 이를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은 상이군인·귀환용사·석방된 포로 등의 인물군상을 다룬 작품들<sup>21)</sup>이다. 돌아와보니 예전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은 전후문학의 한 특징인 귀향소설(Heimkehrerroman)의 주제이거니와, 하인리히 뵐의 작품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향소설과 관련된 군대=도시의 의미를 논하는 과정에서 전쟁문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문학에 대한 논의는 그간에도 각 문예지의 연례행사격인 '6.25 특집'이나 '분단문학'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취급되었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언급에 그쳤고, 정작 작품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최근의 조남현, 오세영 교수의 논문을 통해 조금씩 해명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sup>22)</sup>. 특히 오세영 교수는 전쟁문학의 특징을 '반전문학·휴머니즘문학'으로 한정하여 전쟁문학에 대한 그간의 논의 즉 '전쟁을 소재·제재·주제로 한 문학'이라는 식의 추상적인 논의를 훨씬 좁힘으로써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향소설'이라는 명칭에 대해 먼저 사전적 정의를 참조하자면 "전쟁이나 포로상태에서 귀향하게 되는 사건을 주내용으로 하고, 물질적인 파괴

21) 귀환 상이군인상은 전쟁피해와 손상된 삶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오상원의 「백지의 기록」(사상계, 57.5-12), 하근찬의 「수난 이대」, 손창섭의 「혈서」, 현대문학, 55.1), 유주현의 「장씨일가」, 서기원의 「암사지도」, 「이성숙한 밤의 포옹」(사상계, 60.10)에 잘 드러난다. 이들 신세대 작가라고 분류되는 작가의 작품 외에도 또한 김동리의 「밀나원시대」, 김성한의 「암야행」(신천지, 54.1),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 공히 드러난다.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0, p. 108) 본고는 이 논의에 힘입은 바 크다. 다만 여기에서의 논의는 상이군인이 등장하는 소설의 목록을 제시하는 데 그쳤으므로, 그 소설유형의 일반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것과 또한 그 목록에 다른 작품을 더 추가하여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2)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의 해부』(문예출판사, 1993), 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한국문화』 제13집(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오세영, 「한국전쟁문학론 연구」, 『인문논총』 제28집(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와 시대적·도덕적 지양 중 어느 하나를 주제로 추구하는 시대소설(Zeitroman)의 유형”으로 정의된다. 귀향소설은 개인적인 운명을 강조하거나, 당대 상황과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남겨진 것(Bleibend)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재고품조사(Bestandaufnahme)를 의도한다. 여기에서 전쟁은 명백히 유죄인 것으로 취급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근거와 배후에 대한 질문도 빈번히 취급되어야 할 절박한 문제들로 되돌아온다<sup>23)</sup>. 귀향소설의 정의에는 몇 개의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귀향에는 ‘귀거래사’와 같은 전원취향이나 ‘두보’의 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부역의 고달픔과 망향의식, 혹은 1930년대 카프 작가들의 생활적 논리로의 전향인 이른바 ‘탕자의 귀환’ 등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의 귀환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는 60년대 이후 미국의 퇴역군인소설(veteran's novel)로 이어지는데, 퇴역군인소설이 뚜렷한 반전의식과 휴머니즘을 내세운 것이라면, 이에 반해 여기에서의 귀향소설은 아직 반전의식과 같은 뚜렷한 주제를 형성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저항의 문학과 실존주의 문학의 성격 속에서 제작되었음을 들 수 있다.

귀향소설이라는 용어를 설정할 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상실’이라는 실존철학적인 명제. 둘째 귀향의 사회적 성격. 즉 귀향은 개인적인 체험인 동시에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체험이어서 좀더 객관적인 맥락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 셋째 전쟁문학(Kriegungsdichtung)<sup>24)</sup>과 반전문학(Anti-K)의 하위범주로서의 성격

23)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게르드 가이저 『맥박이 뛰기 시작하다』(1950) 프란츠 쿠믈러 『고향 출발』(1950), 『오스트리아에서의 종말』(1953) 한스 베르너 리히터 『그는 신의 손에 놓여 있다』(1951) 하인리히 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953) 그리고 2차대전 이후의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문 밖에서』(1947) 등이다. 『Metzler Literatur Lexikon』 (J. B. Metzlersche Verlagsbuchhandlung, 1984)

24) 참고로 ‘전쟁문학(Kriegsdichtung)’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간에 의해 치러진 전쟁은 세계문학에 자주 출현한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출현 하에서 비로소 휴머니즘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것은 반전문학(Anti K-)의 형태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전쟁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숙명은 전쟁의 중심테마로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실존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예전의 형태를 들자면, 전쟁영웅시

등이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일단 귀향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동리의 「까치소리」(현대문학, 66.10)와 「귀환장정」(수교문화사, 1951), 하근찬의 「수난 이대」(한국일보 신춘문예, 57.1), 김송의 「두 개의 심정」(문예, 52.6), 김성한의 「귀환」(문학예술, 57.9), 서기원의 「암사지도」(현대무학, 56.6), 장용학의 「요한시집」(새벽, 60.8), 정한숙의 「고가」(문학예술, 56.7), 유주현의 「장씨일가」(사상계, 59.5), 황순원의 「가랑비」(자유문학, 61.6) 「모든 영광은」(현대문학, 58.7) 장편 「나무들 비탈에 서다」(사상계사, 60), 광하신의 「처녀 단장」(전선문학, 53.2) 오영수의 「눈사람」(신천지, 53.7) 손동인의 「임자없는 그림자」(전선문학, 53.9) 이호철의 「퇴역선임하사」와 「나상」(문학예술, 56.1), 차범석의 희곡 「귀향」(조선일보 신춘문예, 56.1).

## 5. 귀향소설의 전반적인 성향

파펜하임은 자신의 소외론을 말하는 자리에서 자주 전쟁의 예를 든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발명이 인간을 전쟁에서 소외시켰고, 그러한 소외현

---

(Heldenlieder)인 호머의 『일리아스』로부터 중세 십자군의 노래, 설리, 클라이스트, 그라베의 작품과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에밀 졸라와 월터 스코트의 역사소설의 일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작품에서 전쟁은 거의 신비화, 이상화 혹은 세태적으로 센터멘탈한 것으로 표현되며 사실주의적인 작품은 드물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설은 물론 드라마와 방송극에서 전쟁에서의 체험이 도큐먼트와 르뽀, 허구의 혼합물로서 나타난다. 전쟁의 체험은 포로수용소, 레지스탕스 체험이 포함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문 밖에서』, 하인리히 뵐의 작품이 포함되는데, 이는 귀향자소설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들 작품은 전쟁의 절망, 고통, 죽음, 슬픔, 황폐화, 평화에의 동경 등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반전소설 외에도 영웅주의적, 전쟁 독려형, 전쟁 찬미형, 전쟁 변명형의 소설도 있다.(『Metzler Literatur Lexikon』, 위의 책. 오세영, 「한국 전쟁문학론 연구」 참조)

상은 특히 한국동란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지친 사람들이 또하나의 전쟁에서 보다 심각하게 인간의 소외를 경험하고 이를 계기로 서서히 반전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그는 한국전쟁에 이르러서 ‘소외’가 보다 전면화되었음을 주목하면서, 폭격에 참여했던 비행사의 증언을 인용한다.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비인간화되었던 것이겠지요. 유럽을 비행할 때는 마을과 빛이라도 볼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고, 갑자기 우리는 혼자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 신이여, 도대체 여기가 어디니까?’라고 혼자 불경한 소리를 뇌까리게 되었답니다.”<sup>25)</sup>

이러한 파펜하임의 소외론은 기술의 발달이 비인간화와 소외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전쟁과 관련시켜 적절히 지적한 것인데, 유주현의 『장씨일가』(사상계, 59.5)는 그러한 소외의 모습을 특이한 소설구성으로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장씨일가』는 지뢰사고로 실명한 후 제대한 장정표와 국회의원인 그의 아버지, 아내 경심, 그녀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비서 김윤수, 동생인 불량학생 성표와 그로 인해 임신한 가정부 성자 등 서로 불신과 기만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지뢰사고로 전역한 장정표 대령은 군대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

군대라는 곳은 좀더 능란하게 찢기 있는 젊은이를 조종할 줄 알았다……  
줄병 위에도 소위의 권세를 자랑시켜 심리적으로 유혹했다. 그래 소위가 되어 보려고 열심히 했다. 보람으로 소위가 되어 보니 소령이 부러웠다. 대대장을 거쳐 연대장이 되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었다.

(중략)

그날, 파괴된 육체가 사병들의 전송을 받으며 산길을 내려올 때, 그는 안은 하에 잠들어 있던 위식세계를 지금껏 감사한다.

정말 감사한다. 잠들지 않고서야 그, 한 인간의 참혹한 실패를, 장정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며, 만약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장정

25)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들의 귀향과 한국동란의 참전용사들의 귀향과는 꼭 6년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집단의 전역군인들 사이에 놓인 두드러진 차이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예의 주시되었다.”(파펜하임, 김영철 역, 『현대인의 소외』, 삼성미술문화재단, 1984, pp. 70-72)

표 자기는 끝내 정착할 줄 모르는 불나비로서 험준한 산악지대를 방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sup>26)</sup>

실로 '고문'과 같은 그의 의식세계는 실명한 상태에서 군대에서 받은 혼장을 매달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 보다 증폭된다. 아버지 장달중은 비밀회의에서 모의를 일삼고, 동생은 가정부를 임신시키고, 아버지의 비서인 김윤수는 장정표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장씨일가는 표면적으로는 화평을 유지하는데, 작가는 이들의 모든 부면을 영화의 오버랩 기법과 몽타주 장면을 통해 제시한다. 가족들은 고립 분산되어 있고, 비서와 가정부와 의 관계도 간통·간간·불신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이러한 왜곡된 인간관계는 실명한 그에게 걸려오는 전화소리, 지뢰 폭파음과 혼장 등의 병치로 인해 더욱 강렬하게 제시된다. 퇴역군인인 그로서는 "군대 복무 14년 동안에 자기가 받은 여섯 개의 혼장을 가슴에 나란히 달아보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한날 회상의 자료가 되었을 뿐, 파괴된 육신과 위축된 의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불행의 원인은 단지 지뢰사고가 원인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대로 "지금도 그인 가정에 돌아온 게 아네요. 군대에서 쫓겨났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출세에의 집착에 있었다. 이러한 상이군인의 인물상은 그의 「허구의 종말」(현대문학, 57.6)에서 거듭 다루어진다.

이어령은 유주현의 「허구의 종말」, 「장씨일가」를 함께 평가하는 자리에서 '귀향'의 의미를 실존주의 문학과 관련시키고 있는데, 귀향모티브에 대해 실존철학적 해석을 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허구의 종말」에서 상이군인인 '나'는 제니스 라디오를 화재터에서 훔쳐 지프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전신주에 매달려 위로는 '요주의'라는 붉은 칼새, 아래로는 경관의 총구 사이에 즉,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는 "사경 속에 몸소 뛰어들어온 애인 은애의 행동을 계기로 하여 허구가 종말되고 순간 해명된 실존의 비밀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어령은

26)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세계전후문학전집 1』, 신구문화사, 1983), pp. 243-244.

「허구의 종말」에 나온 ‘나’라는 주인공은 이렇게 일상적 세계의 ‘허구’에서 벗어나 그 인간 본래의 고향을 찾아 귀향하는 것이다<sup>27)</sup>라고 평가함으로써 이 작품의 의미를 ‘인간 본래의 고향을 찾아 귀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귀향소설에는 전시/전후, 전장터/후방의 장면을 병치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하근찬의 「수난 2대」(한국일보, 57.1. 신춘문에 당선작)와 김송의 「두 개의 심정」(문예, 52.6)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근찬의 「수난 2대」는 일제하 징용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부상과 6·25때 국민방위군으로 입대한 아들의 부상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제시하고 있다. 2대에 걸친 수난의 역사를 짧은 분량의 단편으로 집약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전면적인 묘사는 피하고 있지만, 귀환장정인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불구자로 설정하고, 그러면서도 그 외상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일종의 넉넉한 해학을 택하고 있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에 비해 김송의 「두 개의 심정」은 역사적 시각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동시대의 비극을 공간의 병치에 의해 단 세계의 장면으로 압축하고 있다. 전장에 나간 의 아들 동수는 팔이 잘린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작품은 어머니가 떡을 싸들고 수소문하여 병원을 찾아가는 장면, 병원에서 아들의 팔이 잘린 줄도 모르고 떡을 입에 넣어주며 호못해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 아들의 자살장면으로 끝난다. 이 작품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만원버스 속의 ‘두 개의 심정’은 비극적인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은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가는 길이고, 결말은 아들의 유골함을 들고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이다. 6·25의 비극을 모성애와 결합시켜 이처럼 뚜렷하게 제시한 작품은 드물다.

이처럼 6·25 이후의 소설, 특히 귀향소설과 관련된 작품들은 시간/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아 모더니즘 일반의 특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더니즘 문학이 문체삼고 있는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다소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거리는 줄어들었다. 비행기의 발달은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했다. 도시생활의 더 급속한 변동이 사

27) 이어령, 「귀향하는 사람들」, 오인문 편, 「유주현 연구」(도서출판 서울, 1992), p. 79.

회의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주어짐에 따라 사건들은 더 빨리 이동했고 생활의 전체 속도는 빨라졌다. 우연적인 국제적 교류(상승하는 기온의 상태에서 충돌하는 원자의 속도처럼)의 기회가 증가했고 그와 함께 사상과의 견들이 국경선을 가로질러 교환되는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sup>28)</sup>는 현상이 지적되는데, 이 시기의 귀향소설에도 이러한 물리적·심리적 시간의 변동과 공간의 변동이 작품의 형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서기원의 「암사지도」(현대문학, 56.6)를 들 수 있다. 암사지도란 “지리학에서 白地圖라는 뜻이다. 도로나 도시 같은 인공물이 기입되지 않은 산과 바다 그리고 하천만을 그린 지도”<sup>29)</sup>를 의미하는데, 작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구조의 근사치”를 상덕·형남·윤주 등의 ‘아프레겔’적인 인물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잠자리가 변변치 않아” 상덕의 집을 찾아온 군대동기인 형남과 극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윤주라는 여자는 상덕의 집에서 셋이 함께 기거하는데, 이 집이야말로 ‘암사지도’의 상징이다. 말하자면 이 집은 「암사지도」의 풀뜻이기도 하다.

상덕은 형남에게 장차 사회에 나와 잠자리가 변변치 않으면 자기집으로 오라고 했다. 주소에다 냇간짜리 한식 기와 집의 구조마저 그려가면서, 「네가 오면 요 방을 주지, 하곤, 대문간과 밧불은 뜰아래방을 빨간 오일 연필로 꼭꼭 짚었던 것이다. 「고-마운 말쑤이지, 원랜 그 사나이 첩의 집이었거든, 원 집은 폭력에 폭삭 녹아버렸지 모조리 전멸야. 웬일인지 그집 명의가, 그 사나이 이름으로 있다가 그 첩두 역시 돌아가셨다 그 말쑤이야. 기막힌 유산이지, 상덕은 부친을 언제나 「그 사나이」라고 불렀다.<sup>30)</sup>

이 집안에서 그들은 서로 이상한 형태의 가정과 부부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작가는 결말 부분에서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는 태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일상적인 또한 타락된 상식으로 보기에 그 태아를 없애버리는 수단으로 삼인이 공모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윤주가 스스로 집을 떠나고 애를 낳을 것을 결심하는 장면으로 끝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결말을 택한 이유로 “생명에의 원시적인 애착과

28) James Mcfarlane, 앞의 논문, pp. 77-78.

29) 위의 책, p. 412.

30) 위의 책, p. 116.

신앙은 우리들의 고뇌와 과제를 결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못되나 구원으로서의 가능성과 암시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설명한다. 이 작품은 ‘암사지도’가 연상시키는 폐허와 원시의 공간을 그리고 있다는 점 외에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며, 생명은 어떠한 폐허 속에서도 버릴 수 없다는 확신을 문제삼고 있어 이 시기 작품의 문제성을 대표하고 있다. 그것은 크게 보아 실존주의 문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이 전후파문학의 한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은 플레스코의 『제8요일』이나 하인리히 뵐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홉시 반의 당구』와 같은 전후소설의 ‘귀향형’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건축가와 연인들은 이 세상에 공간을 구축하지만, 전쟁은 그 공간을 파괴한다. 파괴된 공간 속에서 임시의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군상들의 사태를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그 폐허의 모습을 작품의 구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문학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암사지도』의 서두가 이를 잘 보여준다.

어쩐지 삼년간의 군대생활이 실제 그가 체험한 것이 아닌 듯, 어릴때 어머니 무릎에서 들던 얘기처럼 까마득해지는 것이었다. 동대문안으로 뻗은 변화한 거리가 몹시 생소하게 보였다.

이러한 생명중시의 주제를 좀더 본격화시킨 예로 황순원의 소설을 들 수 있다. 특히 황순원의 이러한 생명의식은 「목념이 마을의 개」처럼 6·25 이전의 작품에도 간간히 발견되긴 하지만, 6·25 이후의 작품들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주목해볼 여지가 많은데, 예컨대 「가랑비」, 「모든 영광은」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랑비」에서 자신의 가족이 ‘산사라들’에게 살해당한 ‘전투경찰관’은 통비분자로 몰린 여인을 총살하려다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의 옷을 보고는 ‘총을 두번이나 헛방질’한 다음 전역하고 만다. 「모든 영광은」에서 ‘사내’는 자신이 부역자로 밀고하여 죽게된 남자의 뒤통수를 닮은 그의 아이를 본 다음, 충격을 받고는 그 남자의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기로 결심한다. 이 두 작품은 까뮈의 희곡 『정의의 사람들』을 연상시키는데, 「어머니가 있는 유월의 대화」 등이 담고 있는 황순원의 생명중시 사상은 그의 작품 중 귀향소설

로 분류할만한 장편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취급된다. 이 작품의 ‘숙이’나 「가랑비」의 ‘사내’는 전쟁에서 받은 정신적 외상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작가는 이들은 “전쟁의 파편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패배자는 아니었다”<sup>31)</sup>는 결론으로 유도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이러한 결론은 김동리의 「귀환장정」과 「까치소리」에서 실존철학의 명제에 보다 가깝게 다루어진다.

김동리의 「까치소리」와 「귀환장정」은 실존문학과 관련을 보다 직접적으로 내세우고 있다<sup>32)</sup>. 김동리의 「귀환장정」에서 ‘의권’이 ‘상복’을 입고 골목길로 도망하는 장면이나 「까치소리」에서 ‘까치소리’로 인해 촉발되는 ‘고향상실’의 주제는 실존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 경우 ‘실존’은 주체로서의 자아의 문제성과 성실성을 자각한 존재로 정의된다. ‘실존사상’은 가장 일반적인 용어 사용에서 “기분적 불완전성의 표현으로 세계연관과의 자명적인 유대에서 벗어나 확고한 의미와 질서의 밖으로 빠져나간(脫存)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갖는 새삼스러운 의심”<sup>33)</sup>으로 이 시기의 귀향소설, 특히 김동리의 작품은 이러한 실존의 문제를 가장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군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존주의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장용학의 「요한시집」(새벽, 60.8)은 ‘동호’라는 주인공이 ‘누혜’의 죽음을 목도하고 누혜의 유서를 읽는 장면과 포로수용소를 나온 후 고양이가 물어다주는 쥐를 먹으면서 생존하고 있는 ‘누혜의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으로 구분된다. 그간의 논의는 누혜의 포로수용소에서의 자발적인 죽음의 선택과 실존적인 선택의지와 의 관계, 동굴의 우화가 지닌 의미<sup>34)</sup>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 작품 내에서 정작 사르트르의 『구토』와 비교될 수 있는 장면은 포로수용소에서의 자살 장면보다는 동호가 누혜의 어머니를 만난 다음 방안에서

31) 이태동, 『한국 현대 소설의 위상』(문예출판사, 1986), p. 50.

32) 손세일 편, 앞의 책 참조.

33) 조가경, 앞의 책, pp. 46-47.

34) “그가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 - 黨, 戰爭, 自由人 등의 사실은 ‘한 때의 기만’이었고 ‘흥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의 시도요 마지막 나의 期待’인 자살이 행해진다”는 김현의 해석은 누혜의 자살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김현, 「에피메니드의 역설」, 『한국전후문학전집』, p. 404.



뛰어나와 까마귀소리를 듣는 장면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누혜'는 '누에'로 불리기도 하는데, 작가는 왜 누에를 설정했는가. 작가는 나비/영혼을 뜻하는 프쉬케(psyche)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설한 토마스 불핀치에 의하면, 나비와 영혼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벌레가 죽어 나비가 되듯이,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온다. '누에'가 고치를 벗어나는 것, 작가는 여기에서 실존의 의미를 찾았다. 죽어서야 비로소 획득하는 자유의 원리를 '누에'를 빌려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호철은 이러한 실존철학적인 주제를 자신의 실향체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의 「裸像」(문학예술, 56.1)은 형과 아우가 함께 인민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형의 죽음을 목도하고는 이후 포로석방되어 형의 진실을 되새겨보는 액자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형의 죽음을 방관한 사실에 대한 죄의식과 고향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퇴역선임하사」는 일견 허풍이 강하나 실속은 없는 한 '제대군인'의 삶의 방식을 추적하고 있는데, 적절한 풍자와 비애적인 분위기가 가세된 이 작품에서도 귀향군인의 삶의 모습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고 있다.

그의 다른 작품 「탈향」(1955. 7)은 월남한 동향의 네 청년이 겪는 부산에서의 피난살이를 다루고 있다. 「탈향」이라는 제목이 곧바로 말해주듯이 작품은 실향민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남들이 사촌간으로 볼만큼 가까워진 이들은 화차간에 보금자리를 이루고 근근히 생활을 이어간다. 이들이 이룬 화차간 속의 보금자리는 비록 춥고 배고픈 곳이지만, 고향에 내리던 눈, 잘 웃던 이웃집 형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그 회상의 시간은 시적이다. 그러나 현실적 시간이 개입하는 순간, 황금으로 빛나던 그 순수의 공간은 퇴색하기 시작한다. 나이가 많은 축인 두찬과 광석은 '나'와 하원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광석이 화차에서 실족하여 죽는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냉각되고 균열되기 시작한다. 두찬이 죽어가는 광석을 버리고 혼자 달아난 것이다. 이 작품 또한 '귀향소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향민들이 겪는 한많은 피난살이의 호소에 고치지 않는다. 이 작품이 빛을 발하는 것은 오히려 실향민이 막연한 실향의식에서 벗어나 各自圖生의 길을 걷기 위해 나서는 장

면에서이다. “이미 내 마음 속에선 하원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는 결말은 충격적이다. 나이도 어리고 울기 잘하고 의존적인 하원을 버리고 ‘나’ 자신이 홀로 생존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은 하원을 달래면서 한편으로는 하원을 버리고 도망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나’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루카치는 현대 드라마의 주제 및 형식이 세대차(generation gap)에 집중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세대차를 다룬 드라마에 대해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는 말로 요약한 바 있다. ‘더 이상 아닌 것(no longer)’과 ‘아직 아닌 것(not yet)’ 사이의 갈등은 곧 세대차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귀향’ 모티브는 그 적절한 예로 원용할 수 있다. 귀향은 기성세대와 기존질서에 대한 회의와 반성으로 귀결되는데, ‘고가’는 허물어졌으며, 고향이란 곧 떠나지 않으면 안될 장소로 제시된 정한숙의 「古家」(문학예술, 56.7)는 이러한 세대차의 비극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 6. 결 론

앞에서 말했듯, 1950년대는 ‘민족의 대이동’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그것은 ‘엄청난 지각변동’이기도 했다<sup>35)</sup>. 피난 등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이루어졌고, 토지개혁 등으로 농촌의 자본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나름의 자본주의 구조를 갖추게 된다. 가족제도와 직업의 선택에 있어 예전과는 다른 가치관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은 새로운 소설양식으로 표출되었음을 규명해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골드만의 해설은 충분히 시사적이다. 그에 의하면, 극복될 수 없는 단절의 근거인 ‘구성적 대립’과 서사적 형식이 존재할 수 있게하는 ‘적절한 공동체’ 사이의 간격, 즉 주인공의 타락과 세계의 타락이 소설의 근본적인 성격임을 지적하고 있다.

35)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p. 316.

이 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설은 특히 한편으로는 모든 서사적 형태가 전제로 하는 주인공과 세계 간의 기본적인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소설이란 변증법적인 성격을 갖게 마련이다.<sup>36)</sup>

귀향소설에 관한 논의는 그 일부분이다. 앞에서 거론한 김송의 「두 개의 심정」, 유주현의 「장씨일가」, 하근찬의 「수난 이대」가 담고 있는 장면의 이중적 병치, 과거와 현재의 병치 등 이러한 시간/공간의 불일치는 ‘낮설게하기’의 수법과 ‘실존’에 마주친 주인공의 고민, 심리적 시간 속에 저장된 두 개의 시간 사이에서 비롯된 불일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며 어찌면 영화적 수법이나 기타 모더니즘 문학이 거론하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이러한 귀향소설에 대한 연구는 황순원의 「곡예사」와 김동리의 「밀다윈시대」로 대표되는 피난지 문학, 이호철의 「탈향」 「소시민」과 같은 실향의식을 다룬 월남문인들의 작품군, 혹은 오영수의 「은넛골 이야기」나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 정한숙의 「古家」,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처럼 고향상실을 다룬 작품군에 대한 보완적인 이해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논의는 귀향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성향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이후의 과제는 귀향의 장소를 농촌/도시로 분류한 다음 농촌소설/도시소설과의 맥락 하에서 이를 규명하는 작업과, 귀향소설의 내적 주제인 고향상실에 대해 실존주의 문학과 관련시켜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3)  
 권성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김만수,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형상화방식』, 『문학과 논리』(태학사, 1993)  
 김용직 편, 『한국 모더니즘 연구』 (자유세계사, 1993)

36)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0), pp. 12-13.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김한준 외, 『현대 도시문제의 이해』 (한길사, 1989)
- 문학사와비평연구회,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1)
- 박동규, 「한국전후소설의 배경연구」, 『우리문화』 5집, 1975
- 손세일 편, 『한국전쟁사2:어학,문학』 (청람문화사, 1978)
-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일지사, 1990)
- 신경득, 『한국 전후 소설 연구』 (일지사, 1983)
- 염무웅, 「5, 60년대 남한문학의 민족문화적 위치」, 『창작과비평』, 1992 겨울
- 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2집, 1992
- 오세영, 「한국 전쟁문학론 연구」, 『인문논총』 28집, 1992
- 원형갑, 『현상학과 뉴마르크시즘』 (평범서당, 1985)
- 이기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1989)
- 이어령,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64)
-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 이태동, 『한국 현대 소설의 위상』 (문예출판사, 1986)
- 오인문 편, 『유주현 연구』 (도서출판서울, 1992)
- 전기철, 『한국 전후 문예비평 연구』 (도서출판서울, 1993)
- 전혜자,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도시와 농촌」, 『한국 근대문학의 쟁점』, 한국정신문화원, 1992
- 전혜자, 『현대 소설사 연구』 (새문사, 1987)
-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91)
-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2』 (한길사, 1990)
- 천이두, 『한국소설의 관점』 (문학과지성사, 1982)
- 최혜실,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민지사, 1992)
- 한국문인협회,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0)
- 한상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난 미적 자의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 황희용, 「블록거울 풀이」, 『건축문화』, 1987.10~1988.12

- 클라우제비츠, 김홍철 역, 『전쟁론』 (삼성출판사, 1977)
- 파펜하임, 김영철 역, 『현대인의 소외』 (삼성문화문고, 1984)
- Michel Lagon, 주종원 역, 『현대의 폐허 = 도시』 (삼성문화문고, 1974)
- Bruno Hillebrand, 박병화·원당희 역, 『소설의 이론』 (현대소설사, 1992)
- Kevin Lynch, 『도시의 상』 (녹원출판사, 1988)
- Lucien Goldmann, 박영신 외 역, 『문학사회학 방법론』 (현상과인식사, 1984)
- Kenneth Allsop, 『The Angry Decade』 (John Goodchild Publishers, 1985)
- Malcolm Bradbury & James Macfarlane (ed.), 『Modernism』 (Pelican Books, 1976)
- 『Metzler Literatur Lexikon』, (J.B.Metzlerische Verlagsbuchhandlung), 1984
- Raymond Williams, 『The Country and the City』 (Paladin, 1973)